

KDC 제4판 언어 및 문학류 전개의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the Classes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4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오 동 근(Dong-Geun Oh)*
배 영 활(Yeong-Hwal Bae)**
여 지 숙(Ji-Suk Yeo)***

목 차

- | | |
|------------------------------|------------------------|
| 1. 서론 | 3. KDC4 언어 및 문학류의 개선방안 |
| 2. KDC4 언어 및 문학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 3.1 KDC4 언어류의 개선방안 |
| 2.1 KDC4 언어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 3.2 KDC4 문학류의 개선방안 |
| 2.2 KDC4 문학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KDC 제4판 언어류와 문학류의 분류항목들을 개선하기 위해, 언어류와 문학류의 본표 항목과 조기표 항목을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은 한국문학과 영미문학의 시대구분을 위한 새로운 분류항목의 설정, 불합리하게 설정된 언어정책 및 언어행정의 해당언어의 역사 아래로의 이치, 각국 언어 및 문학의 부적합한 명칭표기의 조정, 표준구분의 적용과 의미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주기에 대한 추가주기의 설정 및 보완, 2개국어사전의 분류규정의 변경, 한국 현대소설의 주제세분을 비롯해 영국문학과 미국문학의 구분을 위한 선택조항의 적용, 그리고 기타 아시아 제어 아래의 드라비다어와 기타 제어 아래의 켈트어, 셈어족, 함어족 하위 분류항목 등 세분전개가 불필요한 항목의 주기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classes of Language(700) and Literature(800) of the 4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They include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ollowings: introducing some new entries of the time table for the Korean Literature and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s; relocating some entries for the improvements including language policy and administration; using new terminologies; adding new and revised notes for the appropriate entries; changing some specific classifying methods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of bilingual dictionaries; introducing some options including those for the subdivisions of modern novels and those for American Literature; and discontinuing some entries not used, especially those in Other Languages.

키워드: 분류 - 언어, 분류 - 문학, 한국십진분류법 - 언어, 한국십진분류법 - 문학, 언어공통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Library Classification - Language, Library Classification - Literatur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Languag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Literature,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Subdivisions for Individual Literatures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경북대학교도서관 사서(yhbae@knu.ac.k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전임강사(wuhaha@km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10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1일

1. 서론

1996년에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라 약칭함) 제4판이 발행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는 제4판에 대한 전체적 제언과 더불어 학문 및 주제분야별 문헌분류의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발표가 다각도로 시도되어 왔다. 특히 학문의 진화와 융합,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문헌분류표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 7월 한국도서관협회는 KDC 제4판(이하 KDC4) 개정을 위한 분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논의와 공청회를 거치고 있다.

KDC4 개정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헌분류표의 여러 주류 가운데 언어 및 문학류는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두 주류는 공통적으로 해당류에만 거의 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별도의 고유의 조기표를 갖고 있어 하위항목의 전개도 다른 주류처럼 주제우선의 전개방식보다는 먼저 언어에 의한 구분을 시도한 후 해당류의 조기표에 따라 세분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류들에 비해 언어 및 문학류는 거의 동일한 패식으로 열거순서도 유사하여, 기호체계가 비교적 간단한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KDC4 언어 및 문학류에 세분되어 있는 분류항목들의 개념과 전개성, 부적절한 분류항목을 비롯하여 이 두 주류들과 맞물려 있는 언어공통구분표와 문학형식구분표의 항목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KDC4 언어 및 문학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2.1 KDC4 언어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2.1.1 언어류의 항목분석

의사소통의 중심적 매체인 언어에는 말과 글 외에도 몸짓이나 표정, 신호 등이 포함된다. KDC에서 이러한 언어류는 여덟 번째 주류 700으로, 하위강목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어(710)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어(720), 일본어(730)를 이어 배정하고 서양의 주요언어들인 영어(740), 독어(750), 프랑스어(760), 스페인어(770), 이탈리아어(780)를 주요강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강목에 기타 제어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분류기호 순서는 크게 3개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언어일반의 요목(701-709)에 표준구분을 적용하여 기호를 전개한 후, 제5조기표인 국어구분표에 따라 첫 번째 강목(710)에 한국어를 배정하고, 이어 개별언어(420-490)를 각각 전개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개별언어에 제7조기표인 언어공통구분표를 적용하여 분류기호를 미리 조합해 두고 있다.

KDC4에서 언어류 강목의 구분은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DDC의 언어류 구분과도 많이 유사하다. 다만 DDC가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비해,

KDC는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의 순서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전세계적인 언어사용비율 등을 고려해볼 때 KDC의 순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주요 언어류 아래의 요목들은 언어공통구분표를 적용해 분류기호들을 각각 전개하고 있는데, DDC나 일본십진분류법(NDC)도 같은 방식으로 하위 항목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다.

2.1.2 언어공통구분표의 분석

언어공통구분표는 각국어의 공통적인 형식이나 특성에 대해 공통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류의 개별언어를 나타내는 710-790의 적용된다. 다음의 <표 1>은 KDC4와 NDC 신정9판, DDC22의 언어공통구분표를 비교한 것이다.

KDC의 이러한 언어공통구분표의 내용을 먼저 NDC의 언어공통구분표와 비교해보면, 항목의 구분과 순서가 거의 일치하며, 다만 마지막 -8이 KDC는 고어, 방언을 함께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NDC는 방언과 사투리(訛語)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KDC의 언어공통구분표의 내용을 DDC의

언어공통구분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 -2, -3, -5의 내용은 DDC와 유사하다. 그러나 -4 어휘와 -6 작문은 KDC에만 있는 항목이다. 또 KDC는 -7과 -8에 독본, 해석, 회화와 고어, 방언을 각각 두고 있는 반면에 DDC는 -7 방언 등을, -8에 제2외국어로서의 학습에 필요한 언어의 표준용법 등을 포함한 규범언어학을 각각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항목의 내용은 유사하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전체적으로 KDC의 언어공통구분 항목이 다른 분류표에 비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DDC에 비해 하위항목이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8에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고어와 방언이 함께 설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로 형성된 언어류의 본표와 조기표인 언어공통구분표의 분류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실무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김자후 2003; 정해성 2003; 윤희운 2005).

- ① 주제가 비논리적이거나, 항목전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표 1> KDC4와 NDC 신정9판, DDC22의 언어공통구분표

기호	KDC	NDC	DDC
-1	音韻 및 文字	音聲, 音韻, 文字	Writing systems and phonology(표준어)
-2	語源	語源, 語義, 意味	Etymology(표준어)
-3	辭典	辭典	Dictionaries(표준어)
-4	語彙	語彙	---
-5	文法	文法, 語法	Structural system(grammar)(표준어)
-6	作文	文章, 文體, 作文	---
-7	讀本, 解釋, 會話	讀本, 解釋, 會話	Historical and geographical variations, modern nongeographic variations
-8	古語, 方言	方言, 訛語	Standard usage of the language(prescriptive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 ② 분류규정 가운데 효율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분류기호가 분산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용어가 개념 및 시대에 부적절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④ 언어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분류항목들이 다수 존재하여 분류기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분류표의 분량을 방대하게 하고 있다.
- ⑤ 언어류에는 분류항목 아래 다양한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KDC는 주기의 형식과 기술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애매한 문장까지 있어 분류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기설정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윤희운 2005, 163)을 받고 있다.

2.2 KDC4 문학류 전개의 특성과 문제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라는 매체로 표현하고 있는 문학은 언어와 깊은 관련성을 갖게 되며, 문헌분류표에서도 이런 점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KDC에서 문학류는 언어류에 이은 아홉 번째 주류 800으로, 하위강목들은 앞서 살펴본 700 언어류의 강목과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이가 거의 없어 국어구분표 및 언어류와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요목은 표준구분이 적용되는 문학일반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학류의 조기표라 할 수 있는 문학형식 구분표를 적용하여 분류기호들을 각각 전개하고 있다.

한편 문학류는 총류와 더불어 분류의 기본원

칙이라 할 수 있는 “도서는 먼저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에 의해 분류한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1997, 22)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먼저 언어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 요목에서 각 문학형식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KDC의 문학형식구분은 관련된 저작자의 수, 대상, 유형, 관점 등 문학의 하위형식에 따라 세분하는 DDC는 물론 NDC에 비해서도 단조롭고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문헌의 분류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로 형성된 문학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분류실무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정해성 2003; 윤희운 2005).

- ① 동일문학형식 내에서 시대구분을 포함한 세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분류업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 예로 문학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문학 아래의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경우 동일한 분류기호를 갖는 문헌의 수가 매우 방대하다. 이러한 점은 번역문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미문학 아래의 영미시와 영미소설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 동일한 분류기호에서 도서기호로 개별성을 표시하고 있지만 구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② 문학류에서도 분류항목 아래 다양한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기술내용이 미흡하여 분류실무자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문학자료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 문학을 위한 별도의 분류항목이 없다.
- ④ 언어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류의 890 기타 제문학 아래의 분류항목 가운데 국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도 매우 소량이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분류항목들이 다수 존재하여 분류기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분류표의 분량을 방대하게 하고 있다.
- ⑤ 불합리하게 설정된 분류항목의 이치와 부족한 분류항목의 전개가 요구된다.

3. KDC4 언어 및 문학류의 개선방안

3.1 KDC4 언어류의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언어류에 적용되는 언어공통구분표와 700 언어류 분류항목 가운데 분류항목의 새로운 전개와 이치, 삭제, 주기사항의 보완 등을 중심으로 KDC4의 언어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1 언어공통구분표 및 관련항목의 수정

KDC4의 언어공통구분표의 8개항목 가운데 -8에 성격이 서로 다른 고어와 방언이 함께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어는 N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념상 해당언어의 역사 아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언어공통구분표의 -8은 방언(사투리)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언어공통구분이 적용되는 701 언어학부터 710-780 각국언어에 그대로 적용되어, KDC4의 701.8 고어, 방언학에서 고어는 701.09 언어학사 아래의 701.091로 이치하고, 701.8은 방언학만으로, 그리고 KDC4의 한국어(710)의 경우에도 718 고어, 방언, 속어에서 고어는 710.91, 이두는 710.911로 각각 이치하고, 718은 방언(사투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국어의 고어와 방언에 대한 처리는 한국어의 예를 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3.1.2 새로운 분류항목의 설정

KDC4의 언어류에는 몇몇의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일부언어,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의 경우는 문헌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표 2>와 같이 언어사 아래에 시대구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에는 구체적인 시대구분을 나열하고 이외의 강목 수준의 각 언어사(예: 중국어사 등) 아래에는 “710.9와 같이 분류한다”라는 주기를 제시하여 언어별로 필요에 따라 항목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사의 시대구분¹⁾은 학자에 따라 3분법, 4분법, 5분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선안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어사의 4분법을 적용하여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구분하고자 한다(홍윤표 1995, 321-323).

한편 721.2 중국어 문자, 한자 아래에 <표 3>과 같이 주석본(註釋本)과 함께 한자의 성립

1) 국어사에서 시대구분은 언어적 특징과 언어 변화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야 하며 문제는 구분의 기점으로, 4분법에 의한 국어사는 그 기점을 훈민정음창제, 임진왜란과 갑오경장에 두고 각각 구분하였다(홍윤표 1995).

〈표 2〉 한국어를 비롯한 언어별 시대구분

분류기호	KDC4	개선안
710.9	한국어사	한국어사 및 언어정책
.91	---	고대국어(~1443)
.92	---	중기국어(1443~1598)
.93	---	근대국어(1598~1894)
.94	---	현대국어(1894~)
740.9	영어사	영어사 및 언어정책
.91	---	고대영어(~1050)
.92	---	중세영어(1051~1450)
.93	---	근세영어(1451~)

〈표 3〉 중국문자의 기원과 형성과정의 개선안

분류기호	KDC4	개선안
721.2	文字, 漢字	문자, 한자
.23	---	주석본
.24	---	육서(六書)
.26	---	자형(字形)
.261	---	고문(古文)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과두문(科頭文) 등을 포함한다
.262	---	전서(篆書) 대전(大篆), 소전(小篆) 등을 포함한다.
.263	---	예서(隸書) 진예(秦隸), 한예(漢隸) 등을 포함한다.
.264	---	해서(楷書) 진서(眞書), 정서(正書), 금예(今隸)
.265	---	행서(行書)
.266	---	초서(草書)

유형(造字方法) 또는 해자(解字)의 원칙을 나타내는 육서(六書)와 자형(字形) 등의 관련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고대 동양문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을 비롯하여 한자 자형의 변화 및 형성과정, 중국문자의 자체(字體)와 구조법칙(造字法)에 대한 관심과 연구²⁾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문자의 기원과 형성과정, 특히 한자의 서체과정을 한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갑골문부터 한자의 변천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서, 행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

이 외에도 언어류에서 조기표 적용에 따른 새로운 분류항목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2) 갑골문은 단순한 문자학 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3) 특히 〈표 3〉의 내용은 한성대 강순애 교수의 자문과 제안을 받아 개선안을 제시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먼저 701 언어학 아래에 701.6 작문이라는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701.1 음운론부터 701.8 방언까지 언어공통구분을 적용한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701.6에 작문만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10 한국어 아래의 표준구분 적용항목으로 710.27 한글의 컴퓨터응용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한글의 컴퓨터응용은 표준구분의 -027 보조기법 및 절차를 적용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 들어 한국어 정보처리에 관한 문헌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본표상에 직접 분류기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분류실무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KDC4의 796 오스트로네시아어 아래의 796.5 미크로네시아어, 멜라네시아어에서 멜라네시아어파를 미크로네시아어(796.5)와 분리해 별도의 분류항목으로 설정하고, 이 신설항목 멜라네시아어파(796.3)에 포함되는 언어들(피지어, 뉴기니 연안부의 제언어, 솔로몬군도 등의 제언어)을 주기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3.1.3 부적절한 분류항목의 이치(移置)

KDC4 언어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항목설정이 부적절한 경우는 분류항목을 이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언어의 언어정책 및 행정은 해당언어의 역사 아래로 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KDC4에서 701.02가 언어정책, 언어행정 및 언어공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정책 및 행정에는 해당국의 역사 및 지리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709 언어사로 그 내용을 이치하면서 해당요목의 명칭도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709.8 언어정책 및 언어행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존의 701.02는 언어공학만을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언어일반에서 뿐만 아니라 각 국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조기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710 한국어의 경우 710.02 국어정책, 국어행정을 710.9 국어사로 이치하면서 명칭도 국어사 및 언어정책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710.98에 국어정책, 국어행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의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주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표 4> 언어정책 및 언어행정의 개선안

분류기호	KDC4	개선안
701.02	언어정책, 언어행정 및 언어공학	언어공학
709.8	언어사 ---	언어사 및 언어정책, 언어행정 언어정책, 언어행정
710.02.9	국어정책, 국어행정 국어사	--- 국어사 및 국어정책 국어사는 시대구분에 따라 구분한다.
.95	---	국어계통론
.98	---	국어정책, 국어행정

한편 KDC 제4판 713 사전 아래에 설정되어 있는 713.04 고사숙어사전을 714 어휘 아래의 714.3 속어, 관용어로 이치하고 고사성어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어학내의 특수사전은 그 주제에 분류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6, 833)는 분류규정에도 적합하다.

기존의 714.9 은어, 계급어 항목에는 유사한 개념인 비어(卑語), 직업어를 추가하고, 718에 있던 속어도 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718에는 고어와 속어는 관련주제로 이치되고, 언어공통구분표 수정에 따라 오로지 방언만 남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항목 이치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이 외에도 언어의 실질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응용언어학 분야인 701.03 언어사회학, 701.04 언어심리학, 701.07 계량언어학, 통계언어학은 701.01 언어철학, 언어미학 아래로 이치하여 세분전개(표 6 참조)하는 것이 언어학의 표준구분 적용에 혼란을 줄여주고, 다른 학문, 예를 들어 600 예술, 360 법학 그리고 390 국방, 군사학 등⁴⁾의 전개와 조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1.4 분류규정의 변경

KDC4에서는 2개국어사전(bilingual dictionaries)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언어에 분류하고 상대어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전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하는 DDC⁵⁾나 NDC⁶⁾의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한

<표 5> 고사숙어사전과 고어, 방언의 분류항목의 이치

분류기호	KDC4	개선안
713.04 714.4	고사숙어사전 속어, 관용어	--- 속어, 고사성어, 관용어
714.9 718	은어, 계급어 고어, 방언, 속어	은어, 비어, 속어, 계급어, 직업어 방언 및 사투리

<표 6> 응용언어학 분류항목의 이치

주 제	KDC4	개선안
언어철학, 언어미학	701.01	701.01
언어사회학	.03	.013
언어심리학	.04	.017
계량언어학, 통계언어학	.07	.018

4) 600 예술 아래 600.13 예술사회학, 340.18 정치심리학, 600.18 예술심리학, 360 법학 아래 360.13 법사회학, 360.18 법심리학 그리고 390 국방, 군사학 아래 390.133 국방사회학, 390.19 전쟁심리로 각각 전개하고 있다.
 5) DDC는 2개 국어사전의 분류에 대해 엄밀한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DC는 2개 국어사전은 원칙적으로 표목(entry words)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개 언어 모두 표목으로 사용되는 2개 국어사전은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언어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Dewey 2003, vol. 1, 655의 해당조항 참조).
 6) NDC의 경우에는 DDC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일영사전과 영일사전을 각각 833.2와 833.3에 별도로 분류하도록 구분하고 있다(日本圖書館協會 1995, 388).

영사전과 영한사전이 동일한 분류기호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서가상에 뒤죽박죽 섞여서 배열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언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문헌분류를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자주 혼란을 주어 분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2개국어사전을 표제어에 분류하고 해설어를 부가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표제어를 가진 사전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 다만 도서관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언어에 분류하고 상대어를 부가하도록 하는 기존의 방식을 별법으로 두어, 소규모 도서관 등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표 7 참조).

3.1.5 분류항목의 용어의 구체화

언어류의 항목 가운데 표기가 모호하여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용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14.5 유어(類語), 동의어, 반의어에서 유어는 유의어로 수정하고, 중국어 아래의 721.1 음운, 음성, 발음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성조를 나타내는 사성(四聲)을 추가하여 항목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3.1.6 불필요한 분류항목의 조정

언어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분류항목들은 삭제하거나, 상위분류항목 아래에 포함하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항목의 예로는 <표 9>와 같이 739 기타 아시아 제어 아래의 739.9 드라마비

<표 7> KDC4와 개선안의 2개국어사전 분류방식 비교

구 분	KDC4		개선안	
	표 준	별 법	표 준	별 법
기준언어	덜 알려진 언어	표제어	표제어	덜 알려진 언어
부가되는 언어	상대어	상대어	상대어	상대어
예 (한국)	영한사전	743.1	743.1	743.1
	한영사전	743.1	713.4	743.1

<표 8> 분류항목 용어의 구체화

분류기호	KDC4	개선안
714.5	類語, 同義語, 反意語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721.1	音韻, 音聲, 發音	음운, 사성(四聲), 음성, 발음

7) 이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31일 열린 제7차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에서는 본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2개국어 사전의 경우 표제어에 분류하고 해설어를 부가하도록 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표 9〉 KDC4의 항목을 주기로 대체하도록 하는 경우의 예

분류기호	표 목	주기대상어(KDC4의 기호)
739.9	드라비다어	남드라비다어(전 739.91), 중앙드라비다어(전 739.92), 북드라비다어(전 739.93)
792.4	켈트어	아일랜드어(전 792.42), 스코틀랜드어(전 792.43), 만어(전 792.44), 웨일스어(전 792.46), 브르통어(전 792.48)
793	아프리카제어	호탄토트어(전 793.1), 부시먼어(전 793.2), 뱀투어(전 793.3), 흑인방언(전 793.4), 수단방언(전 793.5)
797	셈어족	동셈족어, 아카드어(전 797.1), 가나안-페니키아어(전 797.6), 남아라비아어(전 797.9)
798	함어족	콧어(전 798.2), 베르베르어(전 798.3), 쿠시트어(전 798.5), 차드어(전 798.7)

어와 790 기타 제어 아래의 792.4 켈트어, 797 셈어족과 798 함어족 하위분류항목 등이 있다.

3.1.7 선택조항의 적용

KDC4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는 두 곳으로 분산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739.8에는 태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796.7-8에는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자바어, 필리핀어 등 주로 섬지역의 언어를 각각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언어들은 언어의 발전과정이나 구조상 차이가 있어 어족이 다르지만, NDC는 이 두 지역의 언어들을 829.3-4에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분류표 활용에 편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KDC도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 따라 동남아시아 언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739.8 동남아시아제어에 분류할 수 있는 선택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말레이어의 하위에 인도네시아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KDC4의 언어의 상하관계도 언어의 일반적인 분류체계에 맞도록 인도네시아어를 상위에 분류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3.1.8 주기사항의 보완

언어류에 다양한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체계적인 주기를 새로이 설정하고 기존의 불명료한 주기들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구분의 기술

표준구분은 본표상에 지시가 없어도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DDC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표상에 그 기호를 밝혀

〈표 10〉 동남아시아지역 언어에 대한 선택조항

분류기호	KDC4	개선안	
		항 목	선택조항
796.7	말레이語	인도네시아어	739.84
.71	---	말레이어	.841
.72	인도네시아語	인도네시아국어	.842
.73	자바語	자바어	.843
.8	필리핀語, 타갈로그語	필리핀어, 타갈로그어	.86

주는 것이 분류실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KDC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구분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특히 오분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시해주는 것이 분류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분류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학(701) 아래에 “언어에 관한 표준구분은 702-709에 분류한다”라는 주기를 추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2) 잘못된 표기법의 수정 및 현지음 표기 등을 포함한 주기내용의 구체화

기존의 주기내용 가운데 표기법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항목 또는 의미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주기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예를 들면 현지음 등)로 전환하여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표기의 대부분은 외국어에 관련된 항목의 경우로, 예를 들면 739 아래의 터키어(739.4)는 투르크어, 피노-우그리어(739.6)는 핀우그르어, 페르미안어(739.63)는 페름어, 서장(西藏)-미얀마어(739.7)는 티베트버마어, 모운-크메르어(739.83)는 몬크메르어, 축치어(739.99)는 추크치어, 플랜더스어(759.32)는 플라망어(플레밍어), 레토-로마니어(789.9)는 라에토로망어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현지음의 경우는 예를 들면 713.23 아래의 주기 “쯘가나, 片가나, 變體가나 등을 포함한다”를 “히라가나(平假名), 가타가나(片假名), 변체(變體)가나 등을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같다.

(3) 주기의 신설

KDC4에서 725 중국어문법과 735 일본어문

법 아래에는 715 한국어문법 아래에 세분된 품사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 고유의 품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다. 따라서 중국어의 문법(725) 아래에는 “다만 양사(量詞)는 725.5, 개사(介詞)는 725.7에 분류한다”라는 주기를 추가하고, 일본어의 문법(735) 아래에는 “다만 연체사(連體詞)는 735.5에 분류한다”라는 주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의 주기를 설정해 분류항목의 용어개정과 함께 그 용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 및 용어들을 제시하여 분류기호 부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DC4의 플랜더스어(759.32)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플라망어(플레밍어)”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벨기에의 네덜란드어를 포함한다”라는 주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4) 주기의 보완

일부의 분류항목은 관련되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주기를 보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715.9 대우법의 주기에는 그에 해당되는 경어법을 추가하여 포함주기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2 KDC4 문학류의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문학류에 적용되는 문학형식구분표와 800 문학류 분류항목 가운데 분류항목의 새로운 전개와 이치, 삭제, 주기사항의 보완 등을 중심으로 KDC4의 문학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분류항목의 새로운 전개

KDC4의 801 문학이론 아래에는 표준세구분을 적용해 분류항목을 전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이론에 의미있는 중요한 일부항목은 표준세구분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이론 및 철학의 하위주제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예미학과 문예심리학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802 수사학에는 문장과 언어의 주요 사용법인 작법과 연설법은 설정되어 있으나, 화법의 주요 분야인 대화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들의 독서교육 열풍에 힘입어 출판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동문학 자료의 전개를 위해 KDC4에서 808.9 특수분야 문학전집 아래에 주기로 처리하고 있는 아동문학을 별도의 분류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⁸⁾

3.2.2 개별문학 시대구분의 구체화

(1) 한국문학의 시대구분

KDC4에서는 한국문학사를 고전문학(810.903), 고려시대(810.904), 조선시대(810.905), 현대문학(810.906)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문학은 고전문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분류표상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현대문학의 시기가 1910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문헌을 개별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

라서 KDC4의 현대문학은 20세기(810.906)와 21세기(810.907)로 세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세기는 해방이전(810.061)과 해방이후(810.062)로 추가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예에 따라 KDC4의 현대시(811.6)와 현대소설(813.6)의 경우도 각각 이에 대응하여 조기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20세기 시(811.6)와 21세기 시(811.7), 20세기 소설(813.6)과 21세기 소설(813.7)로 세분해야 할 것이다.⁹⁾

(2) 영미소설의 시대구분

영미소설은 국내 번역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DC4에서는 시대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843에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한국 현대소설의 기호 -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고 한다(윤희윤 2005, 154). 따라서 영미소설의 경우도 이를 19세기(843.4), 20세기(843.5), 21세기(843.6)와 같이 추가의 시대구분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3.2.3 선택조항의 추가

선택조항(options)이란 도서관장서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준기호법에 대한 대안(Dewey 2003, vol.1, lxxi)으로, 일반적으로는 본표에 지정된 분류기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KDC4에서도 “도서관에 따라 ○○○에 분류할 수 있다”라는 분류주기를 통해 주제전개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조항

8) 이와 관련해서는, NDC 신정 9판에서도 아동문학의 연구를 별도의 요목(909)으로 설정해 두고, 별법으로 이 분류항목에 아동문학을 형식구분과 언어별로 각각 세분하고 있다(日本圖書館協會 1995, 396).
9) 이 경우 KDC4의 813.7에 설정되어 있는 야담, 고담이라는 항목은 813 소설 아래에 포함주기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을 여러 곳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도서관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현대소설의 세분

우선 810 한국문학 아래의 813.6 현대소설은 자료의 증수에 비해 현대소설에 관한 분류항목이 너무 간략하며 시대나 테마 등에 의한 구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DDC와 미국의 회도서관분류법(LCC)과 같은 다른 문헌분류표에서는 문학형식 아래에서 시대, 테마, 개별저자명 등에 의한 구분¹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DC에도 문헌이 비교적 많은 시, 소설과 같은 문학형식구분 항목 아래에서는 더 상세한 전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정해성 2003, 273-296, 윤희윤 2005, 155)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의 현대소설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여 전개시

킬 수 있는 개선안을 하나의 선택조항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표 11 참조).

이 선택조항은 필요에 따라 823.7 현대중국소설, 833.6 현대일본소설, 843.5-6 현대영미소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미문학의 시대구분

도서관장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미문학의 경우는 <표 12>와 같이 시대구분을 통해 자료의 세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조항을 통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영국문학 자료가 많은 18세기 이전은 영국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구분을 채택하고 19세기부터는 세기별로 시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¹¹⁾

(3) 미국문학을 위한 선택조항

KDC4의 영미문학의 분류는 미국문학을 중

<표 11> 한국 현대소설 주제구분의 개선안

분류기호	KDC4	개선안
813.6	現代小說 新小說을 포함한다.	20세기, 1910-1999 新小說을 포함한다.
813.61	---	해방이전, 1910-1945
813.62	---	해방이후, 1945-1999 도서관에 따라 현대소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602 단편소설 .603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604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605 추리, 탐정, 모험소설 .606 괴기, 유령, 공포소설 .607 과학(SF), 공상, 판타지소설 .609 기타소설

10) DDC의 경우 보조표 T.3B와 T.3C에 이들을 각각 세분하고 있고, LCC는 언어-국가-시대-개별저자의 순으로 구분된다.

11) DDC에서는 영문학에 대해 상세한 시대구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내 대부분의 도서관의 영미문학작품의 장서량을 고려해볼 때, KDC에서 그 정도의 상세한 시대구분을 채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12〉 영미문학 시대구분의 개선안

분류기호	KDC4	개선안
840	英美文學	영미문학 도서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을 추가할 수 있다. .1 -1557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시대 .2 1558-1625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3 1625-1799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 18세기 .4 1800-1899 19세기 .5 1900-1999 20세기 .6 2000- 21세기

심으로 하고 도서관에 따라 선택조항으로 영국 문학은 문자 B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의 전통이나 장서량을 고려할 때 영문학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문학을 선택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 선택조항으로 미국문학은 문자 U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조항은 KDC4의 849 앵글로색슨문학을 NDC(日本圖書館協會 1995, 409)와 마찬가지로, 미국문학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 선택조항을 채택할 경우는 849 미국문학에 문학형식구분을 적용하여 별도의 분류기호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표 13 참조).

3.2.4 부적절한 분류항목 이치 및 주기의 조정과 추가

(1) 분류항목의 이치

802 문장작법, 수사학 아래에 있는 저술, 편집법은 그 내용상 문학류보다는 저작권법 아래로 옮기고 최근의 장서량에 비추어 볼 때 각각 저술(011.3)과 편집법(011.4)으로 세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KDC에서 구비문학은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아래에 포함하도록 주기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구비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일제시기 일본에 유학한 민속학자들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국문학 범주에 존재하는 것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구비문학과 동의어로 취급하

〈표 13〉 849를 미국문학으로 사용하는 선택조항의 전개

분류기호	KDC4	개선안
849	앵글로색슨文學	미국문학(美國文學)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1)		시 Poetry
(.2)		희곡 Drama
(.3)		소설 Fiction
(.4)		수필 Essay
(.5)		연설, 웅변 Oratory
(.6)		일기, 서간, 기행 Diaries, letters
(.7)		풍자 Satire and humor
(.8)		르포르타주 및 기타 Reportage and miscellany

는 민속문학이 실제로 민속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는 분야(오세정 2008, 110-114)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DC도 민속문학을 문학류에서 분리하여 398 민속 아래에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KDC도 구비문학을 388 민간전승 아래(예를 들면 388.1)로 이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주기의 조정과 추가

KDC4의 한국문학의 시대구분을 이 논문의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해당분류항목 아래의 모든 주기들은 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아래에도 "구비문학은 388.1을 보라"는 참조주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3.2.5 일본문학 용어의 현지음 표기

KDC4의 830 일본문학의 주요형식들은 한자음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래어표기법 제4장 제2절 제3항의 규정("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8)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표 14 참조). 아울러 특히 만요슈(萬葉集),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처럼 실제로 문헌의 양이 많은 경우는 그 실명을 직접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6 불필요한 분류항목의 조정

문학류에서도 언어류에서와 같이 분류항목 가운데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분류항목들은 삭제하거나, 상위의 분류항목 아래에 포함주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항목으로는 <표 9>와 같이 언어류에서 삭제항목 대상으로 선정한 739 기타 아시아제어 아래의 739.9 드라비다어와 790 기타 제어 아래의 792.4 켈트어, 797 쎬어족과 798 함어족 하위분류항목들과 조기성을 유지하도록 839 기타 아시아 제문학 아래의 839.9 드라비다어문학, 890 기타 제문학 아래의 892.4 켈트문학, 897 쎬족문학과 898 함족문학의 하위항목들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4> 일본문학의 주요형식의 현지음 표기

분류기호	KDC4	개선안
831.1	和歌	와카(和歌)
.15	---	만요슈(萬葉集)
.2	連歌	렌카(連歌)
.3	俳句, 俳諧	하이쿠(俳句), 하이카이(俳諧)
.4	川柳, 雜俳	센유(川柳), 자쓰하이(雜俳)
832.2	謠曲, 狂言	요코쿠(謠曲), 교겐(狂言)
.3	淨琉璃	조루리(淨琉璃)
.4	歌舞伎脚本	가부키(歌舞伎)脚本
833.25	---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겐지(源氏)이야기

4. 결론 및 제언

KDC의 언어 및 문학 분야는 다른 주류에 비해 학문의 발전속도나 이론 등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주류이며, 세분된 분류항목 수도 많지 않고, 대개는 조기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류표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두 주류는 다른 어떤 주류들보다도 기본적인 구조와 분류기호의 조합방식 등에서 서로 관련성과 조기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문학류와 같은 경우는 많은 장서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류보다 도서관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KDC4의 이 주류들의 분류체계와 세분된 분류항목들의 개념 및 전개성, 부적절한 분류항목과 주기를 중심으로 이 두 주류들과 맞물려 있는 언어공통구분표와 문학형식구분표의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에 따라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분류항목 설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먼저 특정언어 가운데 그 언어의 시대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와 영어에는 구체적인 시대구분을 나열하고, 언어별로 필요에 따라 항목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어의 문자, 한자 아래에 주석본(註釋本)과 함께 한자의 성립유형(造字方法) 또는 해자(解字)의 원칙을 나타내는 육서(六書)와 자형(字形) 등의 관련항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② 언어공통구분표의 -8에는 고어와 방언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데, 고어와 방언은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고어는 개념상 언어의 역사 아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8 고어, 방언에서 고어를 삭제하여 -8 방언(사투리)로 수정하고, 고어는 언어사 아래로 이치하고, 언어공통구분이 적용되는 710-780 각국언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언어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항목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어정책 및 언어행정을 해당언어의 역사 아래로 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2개국어사전의 분류에서 주관적 분류를 배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언어 친밀도보다는 표제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분류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한국문학과 그 문학형식구분, 영미소설 등에 시대구분을 구체화하여 군집된 문헌내에서의 개별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⑥ 선택조항을 통해 한국의 현대소설을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여 전개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비롯해 영미문학의 시대구분, 미국문학의 별도구분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⑦ 언어 및 문학류의 분류항목 가운데 자료의 양이 부족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드라마디어(문학), 아프리카제어(문학), 셴어족(문학), 함어족(문학) 아래의 하위항목들은 삭제하거나, 상위분류항목 아래에 포함하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⑧ 분류실무자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따

른 오분류를 줄이고 일관성 있고 명료한 분류기호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학류 아래의 분류항목에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⑨ 일본문학의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는 한

자음에서 일본어 원음으로 표기를 변환하고, 특히 만요슈(萬葉集),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처럼 실제적으로 문헌의 양이 많은 경우는 그 실명을 직접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8. 외래어표기법. [2008년 11월 1일 인용].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 김자후. 2003. KDC 4판의 언어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03-226.
-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2. 『KDC의 이해』. 대구: 태일사.
- 오세정. 2008. 민속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향. 『韓國民俗學』, 47: 110-114.
- 윤희윤. 2005. 『정보자료분류론』, 수정증보판. 대구: 태일사.
- 정해성. 2003.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73-296.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1997. 『개정 제4판 韓國十進分類法 解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96.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운표. 1995.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國語學』, 25: 329-334.
- 日本圖書館協會. 1995.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Dewey, Melvil. 200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Dublin, OH: OCLC.

